

## 【물류뉴스-정책】

### ◆ 건설교통부, 일본노선 운수권 재배분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본과의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운수권(Traffic Right)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고 항공법령의 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지역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의 취항 및 공급력 증대의 사, 노선개척을 위한 항공사의 노력, 미사용 운수권의 활용 등을 감안하는 한편, 양 항공사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에게는 서울~오사카 여객노선 주 220석, 서울~삿포로 여객노선 주80석, 서울~동경 여객노선 주700석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배정 사용토록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서울~오사카 여객노선 주170석, 서울~구마모토 신규 여객노선을 배정하여 기존에 아시아나가 배분받은 운수권 중 서울~후쿠시마의 미사용분 주340석을 전량하고 미배분된 서울~오키나와의 주170석을 포함하여 위 노선에 주510석 규모로 운항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번 서울~구마모토노선의 아시아나에 대한 신규배분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한·규슈지역의 노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본간에는 양 국적항공사 29개 노선에 주255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2002년 한해동안 편도 기준 770만명의 승객이 양국간 왕래하였다. 총 취항횟수는 대한항공이 19개 노선에 주136회, 아시아나가 17개 노선에 주119회으로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양 국적 항공사의 취항편수가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 ◆ 관세청, 수출화물 선적전물품확인제도 마련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부정수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적전 물품확인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간소화된 수출절차를 악용, 부정환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 검사한 물품을 타물품으로 교체 선적하는 등 부정수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CSI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관세청은 선적전물품확인제도의 시행이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확인대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컨테이너X-Ray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품확인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박회사 및 화주 등이 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적용, 선적 24시간 이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기타화물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및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 한국 SCM 민·관 합동추진위원회 3인 위원장 체제로 개편

한국 SCM 민·관 합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위원장 산 업자원부 김중갑 차관보, 신세계 이마트 부문 황경규 대표이사)는 SCM 활성화를 위해 우선 그간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가 맡아 오던 공동위원장을 정부, 유통, 제조의 3인 위원장 체제로 개편된다.

현재 3개인 분과위원회(시범사업, 표준화, e-마켓플레이스연구)에 '산업별 분과위원회' 및 '중소기업 SCM추진 분과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SCM 전략을 전산업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을 통해 유통·제조업체간의 분쟁 중재 및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제3자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의 국제동향 소개,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유통전문인력 양성, 유통 관련 신기술 연구 등 유통국제화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건교부, 물류시설 확충 사업에 2,353억원 지원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2,353억원(용자 879억원, 보조 1,474억원)을 민간에 지원하는 방안을 20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국가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물류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간에 지원되는 20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호남, 중부권을 비롯한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한다. 일반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지원하여 복합화물터미널과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한 유통단지 54만평을 개발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에 3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둘째, 물류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04년까지 수출입물류와 국내물류를 포괄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택배서비스, 공중수·배송 등 국내 물류 B2B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2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한 유관망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 정보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셋째,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하위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중량화물을 연안해송으로 흡수하기 위한 경인운하를 건설키로 하고 향후 그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안화물전용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대 구조개선 자금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국제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김포공항의 유헄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Air Cargo Complex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간 철도-해운 복합운송시스템구축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구축

국내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중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시범운영시스템을 설치한 뒤 2005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설치하게 될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물류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집중화, 표준화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 정보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중인 전용회선 중심에서 이용료가 저렴한 인터넷체제로 전환된다.

인터넷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는 ED이용료가 절감되고 신속 정확한 정보교류로 기업의 의사결정력이 높아지며 대외적으로도 외국 항만과의 정보교류가 빨라져 전자상거래 등 부가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류뉴스-물류센터】

◆ 포스코, 중국에 자동차강판 가공센터 설립

포스코가 중국 상하이 인근 료산시에 자동차강판 복합가공센터를 신설한다.

포스코는 지난 4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동차강판 가공, 판매를 담당하는 포항기차배건 제조유한공사(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중 법인을 설립하고 250억여원을 투자해 2005년 4월까지 연산 20만톤 규모의 자동차강판 복합가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번 가공센터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공급망 관리(SCM)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개발 초기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고객사와 철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EVI(Early Vendor Involvement)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해 중국 자동차강판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가공센터는 4대 전략제품의 하나인 자동차강판의 안정적인 해외 판매망 구축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동차강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설비 증설에 치중하고 있어, 포스코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합가공센터 신설을 결정했다.

앞으로 포스천진 등 기존의 중국 지역 코일센터와 복합가공센터를 긴밀하게 엮어 고품질의 자동차강판과 가공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중국지역 고객사와 공동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1단계에 이어 2010년까지 연산 35만톤 생  
산체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법인이 투자자금을 조달해 맞춤형접합판(TWB :  
Tailor Welded Blanks) 설비 등을 설치, 차량 경량화와 자동차사  
의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고품질의 자동차장판을 공급하게 된다.

#### ◆ 신규 물류센터 (주)코리아2000 /(주)한국창고

(주)한국창고는 (주)코리아2000이 100% 투자한 자회사로 서이  
천 I/C에 접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에 건축면적 7200  
평(2층)의 물류센터 1동을 건축 중에 있다.

현재 이회사가 신축중인 물류센터는 거리상  
으로 강남에서 35분의 수도권 교통요충  
지이며, 주변에 원진물류와 (주)코리아  
2000 창고가 인접하여 대단위 물류센  
터 군이 형성될 예정이다. 특히 신축  
물류센터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이천  
I/C에서 창고신축부지로 바로 연결되  
는 2차선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최상  
의 경제성과 물류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국창고의 신축 물류센터 구조는 2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층은 차량출입문과는 별개의 차량통  
행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2층은 별도의 차량출입문이 설계되어  
있어 높은 물류효율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각 층 별로 별도의 차  
량진·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여 별도의 추가설비 없이 각  
층 모두 상·하차가 원활한 구조이다.

한편 (주)코리아2000은 별도로 이천 마장면 장암리의 인접신축  
부지 20,000평에 건축면적 7200평의 신규창고를 신청중이다.  
(주)코리아2000은 창고 임대가로 평당 25,000원을 책정에 놓고  
있으며, 허가받은 부지의 경우는 평당 70만원에 매각하고 매수  
인척으로부터 재의뢰 받아 창고를 건축 계획에 건설할 예정이  
어서 허가를 끝내면 2층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선보일 예정이다.

#### ◆ 농수산물 물류센터 ERP 구축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건설 및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PM코  
리아가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영업·물류정보 선진관리기법 ERP

를 구축한다.

PM코리아가 파주시 검산동에 짓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지난해  
4월 건축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준공, 9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1만5000평(2차 사업예정지구 포함)의 대  
지에 연면적 9,038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구성된다.  
총 645개 매장이 들어서는 경기서북부지역의 최대 규모 농수산  
물 전문물류센터이다.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ERP구축은 ERP전문기업 뉴소프트기술(대  
표 김성훈)과 KT가 공동으로 'bizmeka B2B ERP' 솔루션을 구축  
하게 된다.

뉴소프트기술은 KT와 공동으로 bizmeka B2B ERP솔루션을 통해  
PM코리아의 농수산물 유통·물류업종에 특화된 한국형 표  
준모델과 기준정보 분류코드 체계정립 등을 지원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업·물류 정보의 실시간 추  
적관리 시스템으로 중간정보를 세부관  
리에 나감으로써 혁신적 업무리드타  
임 단축과 경상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PM코리아는 시간·장소·공간  
을 초월한 WEB환경을 기반으로 한  
bizmeka B2B ERP구축으로 정보활용도  
제고와 PDA 등의 첨단 응용기기와의 자연  
스러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다.

PM코리아 관계자는 "유통·물류업 특성을 반영한 매  
장관리, 재고관리, 기획예측기능, 영업관리, 원가관리, 각종측정지  
표 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와 시스템 표준화  
로 세계적인 농수산물 물류센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부천물류유통단지 조성된다

부천시가 낙후된 지역여건과 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물류유통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근에 (사)물류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에서 개최된 제12회 물류CEO포럼에서 물류산업연합회 이재학  
연구원의 '부천유통단지조성의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에 대  
한 보고와 함께 부천시의 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부천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부천시의 물류유통환경, 입지특성, 산  
업특성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10만9



천여평의 유통단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에 '부천유통단지조성의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는 부천시가 부천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부천시의 오정동과 삼정동 일대를 범위로 지정해 조사한 내용이다.

물류산업협회 현병언 회장은 "부천시의 유통단지조성사업은 물류효율화를 위한 공동화, 협업화,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천을 그 중심으로 잡은 것"이 사업은 산학연의 효율적인 협조와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다우코닝, 울산에 물류센터 설립

다우코닝은 노르웨이의 세계적 화학물질 전문운송업체인 오드펠(Odfjell)과 계약을 맺고 경남 울산지역에 물류센터를 설립, 5월에 가동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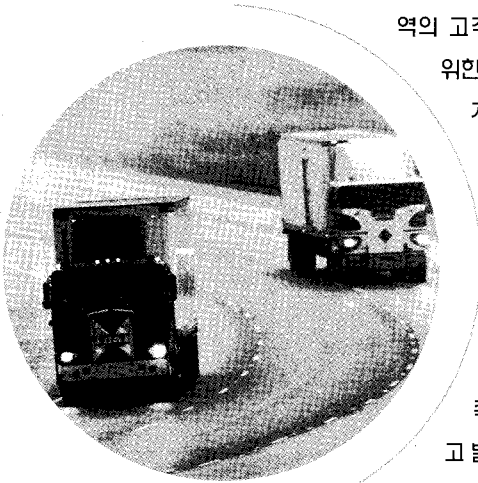
다우코닝은 울산 물류센터를 아시아 전역의 고객들과 제조 공장들을 위한 물류거점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국다우코닝측은 "급증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고 신속한 배송과 융통성있는 서비스로 지역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및 미주의 다우코닝 제조 공장에서 운송된 제품들은 터미널 저장

탱크로부터 로드 탱커나 드럼에 포장되어 아시아 고객들에게 직접 유통된다. 오드펠은 울산으로부터 일본이나 중국 상하이까지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상하이의 저장탱크시설은 도브첸-봄타 터미널(Dovechem-Bomta Terminal)과의 협력으로 신설되었고 대량 제품의 저장 및 포장시설로 이용된다. 상하이 도브첸-봄타 터미널은 싱가포르의 도브첸 스톨타벤 그룹(Dovechem Stollhaven Group)과 상하이 선적(Shanghai Shipping Group Co.)과의 합작투자 기업으로 액체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 보세, 포장, 운송, 분배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 삼성테스코, 동양최대규모 물류센터 오픈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최근 천안시 수신면 신동리에 '목천물류센터'를 오픈했다.

목천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44,773평, 연면적이 16,630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329m×150m)로 1주에 평균 180만케이스, 최대 300만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자랑한다.

삼성테스코는 국내 최적의 교통요충지(목천 T/G)에 위치한 목천 물류센터 하나만으로 전국 23개 홈플러스에 입고될 하드라인(가전, 스포츠용품 등)과 어패럴, 그로서리(공산품) 등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목천 물류센터는 최첨단 소터기와 모든 표준바코드를 수용할 수 있는 OCC(Outer Case Code)박스 바코드, 페이퍼리스 픽킹시스템(Paperless Picking System) 등을 도입해 타 대형물류센터보다 2배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설과 설비면에서도 전구역 난방설비, 무인주유시설, 자동 충전시설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목천물류센터의 오픈으로 삼성테스코는 그간 임대해 사용해 오던 드라이DC인 덕평물류센터를 대신해 자체 드라이DC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향후 55개 점포의 물류를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삼성테스코 목천물류센터 이원기 센터장은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위해 1시간반 이내에 센터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국 각지의 홈플러스 점포에는 3시간이면 배송이 돼 물류비 절감과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물류뉴스-택배】

#### ◆ CJ GLS, 기업은행과 전략적 제휴

CJ GLS(대표 박대용)가 지난 5월 2일 기업은행 9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은행과 물류마일리지 제공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CJ GLS는 기업은행에서 출시하는 Fine Biz Card에 대한 물류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기업고객에 한해서 택배와 3자물류서비스에 결제금액 1%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모아진 마일리지는 대출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금이 없는 경우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적립을 시켜



**박 대 용**  
CG GLS 대표

주게 된다.

이번 양사의 제휴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카드 결제 시행이 업계 최초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향후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고 CJ GLS측은 밝혔다.

CJ GLS의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기업은행의 20만 회원사에게 자사의 홍보 효과와 동시에 DB마케팅을

통해 고객사 유치에 나서게 되며 매출 신장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Fine Biz Card에서 물류 분야에는 택배, 3자물류 서비스에 CJ GLS, 포워딩서비스에 대한통운국제물류가 참여하고 있다.

◆ KGB택배, C2C전문가 한상원씨 영입



**한 상 원**  
KGB택배 전무이사

KGB택배가 개인택배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

KGB택배(대표 이문용)는 최근 한상원(전 C2C택배문화연구원 원장)씨를 택배사업본부장 겸 전무이사로 영입, 개인간(C2C) 택배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택배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비전을 지난 1일 발표했다.

99년 설립된 KGB택배는 개인택배 소비자와의 밀착경영을 바탕으로 2000년 180억원, 2001년 370억원, 지난해는 6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평균 10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해왔다. 올 1분기에는 200억원 가까운 매출실적을 올려 올해말까지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수주해 배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택배 물량이 가진 매력은 크지만 최근 택배업 체간 가격인하 경쟁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KGB와 같은 중견업체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KGB택배는 개인택배 물량 확보와 개인택배 서비스 강화에 집중해 국내 택배시장에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인택배서비스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친절, 배송시간, 파손 분실 등에서의 소비자불만을 개선해내고 지방의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한 지역친화 마케팅을 펼쳐 개인택배 수요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류뉴스-특송】

◆ FedEx, 한국전통 악기·공예품 무료 운송 서비스

FedEx (www.fedex.com)가 미국 멤피스시 최대의 축제인 'Memphis in May International(멤피스 인 메이 국제축제)'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어 각종 한국 전통품을 운송한다.

Memphis in May International 축제는 해마다 멤피스 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출신 국가 가운데 한 나라를 선정, 그 나라의 각종 전통, 민속, 풍습 등의 문화를 멤피스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멤피스시 최대축제로 올해 축제에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이 축제 기념국가로 선정됐다. 이 축제는 5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한국 문화관광부와 FedEx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FedEx는 이번 축제를 위해 필요한 한지 예술작품과 삼고무, 장구 등의 악기 및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각종 공예 작품들을 특별 포장 처리하여 한국에서 멤피스까지 4월 말부터 직접 무료로 운송했다.



찰스 아리나 FedEx 코리아 대표이사는 "미주한인이민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축제에 FedEx가 공식 후원사로서 축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운송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힘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지역사회를 전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한 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멤피스 인 메이 국제축제 정보는 www.memphisinmay.org로 확인할 수 있다.

◆ DHL코리아, 2003 전주국제영화제(JIFF) 필름 운송 전담

DHL코리아(www.dhl.co.kr)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열리는 2003년 전주국제영화제(JIFF)의 필름 운송을 전담했다.

DHL코리아는 지난 1회부터 올해 4회까지 매년 꾸준히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함으로써 전주영화제의 발전과 국제적 대외위상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품한 170여 편의 영화제 필름운송과 통관업무, 행사 후 각국으로의 반송업무 등 운송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DHL코리아는 이미 전주국제영화제 뿐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영화제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 【물류뉴스-항공】

### ◆ 대한항공, 극동아시아지역 최우수 화물항공사 선정

대한항공이 미국에 이어 북미지역 최대 항공화물시장인 캐나다 국제화물대리점협회에 의해 극동아시아지역부문 최우수 항공화물운송항공사로 선정됐다.

캐나다 국제화물대리점협회(Canadi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는 지난 4월, 연차총회를 갖고 목적지별 최우수항공사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 대한항공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극동아시아지역부문 최우수 항공사로 선정됨으로써, 북미지역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대한항공이 수상한 상은 항공사를 직접 선택하는 화물대리점 종사자들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캐나다가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공급을 통해 이 지역 최고의 항공화물 운송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988년부터 서울~토론토 노선에 화물기를 취항하였으며, 현재 보잉 747화물기를 주2회, 여객기를 주3회 운항하고 있다.

## 【물류뉴스-해운】

### ◆ 1분기 환적물량 전년비 32% 증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라크전 발발 등 어려운 국제환경속에서도 올 1/4분기 국내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총 1억 6,577만톤으로 전년도 1억 5,798만톤에 비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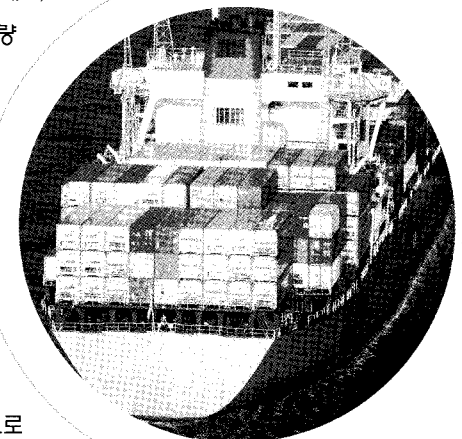
이중 수출은 전년 3,621만톤보다 1.7% 증가한 3,681만톤이었으며, 수입은 1억 962만톤으로 전년 1억 709만톤보다 2.4% 증가

했다. 특히 환적화물은 1,934만톤으로 전년 1,468만톤보다 31.7%나 증가하여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외항선박의 입항척수도 1만 6,984척으로 전년 1만 5,490척보다 9.6%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환적화물의 증가는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항만사용료 인하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 2/4분기에는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밝혔다.



### ◆ 해외 유조선사, 올 1/4분기 수익 급등

올해 1/4분기에 유조선시장의 운임 급등으로 General Maritime사와 Teekay Shipping사 등 영국 유조선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급등했다.

외신에 따르면 General Maritime사는 지난해 간신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었는데 올해 1/4분기에는 9,150만 달러의 운항수익을 기록했고 3,440만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 Maritime사의 유조선 32척은 1/4분기에 대부분 전년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운임으로 용선되었다. 또한 동사는 5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리스 Metrostar사로부터 선박을 구입함으로써 보유선박을 46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Teekay Shipping사도 1/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의 1,570만 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5,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사는 자산거래와 금융거래 등이 없었을 경우 순이익이 8,5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순 운항수익도 2억 1,290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1억 3,620만 달러보다 대폭 증가했다.

### ◆ 한성선박 인천~위해 컨항로 운항사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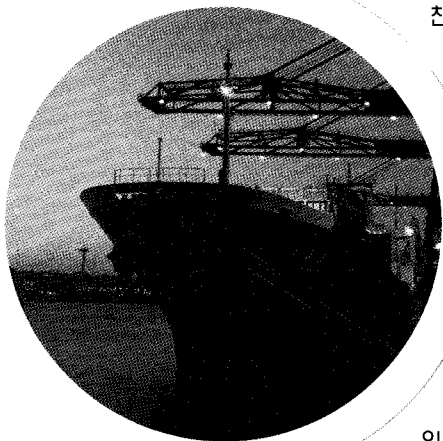
(주)한성선박이 지난 4월 25일 열린 황해선사협의회회의의 최종 협의를 통해 인천~위해간 컨항로의 주관 운영선사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자사의 Full container선을 통해 인천~위해간 서비스를 이용할 화주들에게 운송상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스케줄을 통해 인천~위해간 물류흐름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조양상선의 한~중 / 한~일 부분을 인수하여 북중국 노선의 물동량에 있어 상당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중국의 산업특성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로 전망했다.

한편, 한성선박은 이미 부산~위해간 컨항로를 2001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부산/S(환적)를 통해 부산~러시아 보스토치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부정기선 부문의 다양한 선대를 통해 각종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 ◆ 2005년 '아·태 해사안전최고위급회의' 유치

해양수산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해사안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 23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

이에서 개최되었던 '제6차

아·태 해사안전고위급회

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오공군 안전관리관을

수석대표로 4명이

참가해 해상안전중

합정보센터 설립 등

3건의 해사안전 관

련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수석대표단은 이

번 회의에서 올해 12월에

IMO(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있을 IMO 이사국선거와 관련하여 회원

국들에게 지지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가 2005년 제8차 회의를 개최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APEC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수산업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간 및 양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한층 중대시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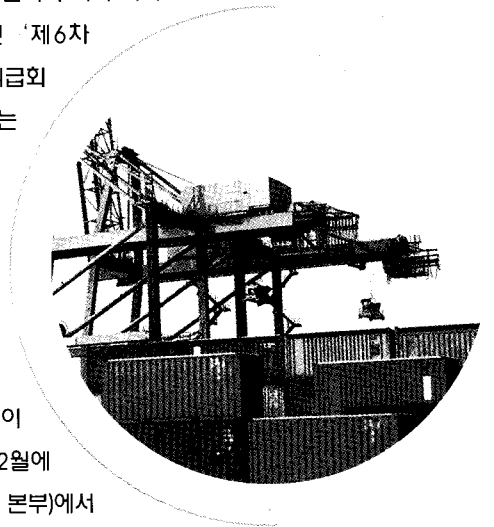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는 UN산하 해사관련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1962년 가입한 이후 2001년에는 주요해운 선진국 10개국으로 구성되는 A그룹이사국에 선출됨으로써 IMO 관련 국제 활동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아·태 해사안전고위급회의'는 아·태지역 각국의 해사 안전 정책발표 및 토론, 정책협의 등을 통해 해사안전 관련 아·태지역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로서 아·태지역의 18개국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 ◆ 부산항운노조, 노무독점권 포기 선언

부산항 개항 이래 12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폐지되고, 노사합의에 의한 노무공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하역협회는 최근 노무공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항만 노조원의 40퍼센트에 달하는 3,700여명이 중사하고 있는 부산항에서 노조의 노무독점권포기 선언이 나온 만큼 이번 합의가 앞으로 항만 노무공급체제의 일대전환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진해운, 선박량 세계 5위 랭크

한진해운의 선박량이 세계 5위에 랭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03년 1월 세계 50위권 정기선사 선박량 추이'에 따르면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Senator의 선박량을 포함해 총 87척 · 30만 6,925teu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상선은 34척 · 12만 4,047teu로 17위에 랭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세계 상위 50개 선사들의 선박량은 2,852척 · 590여만 teu로 1997년에 비해 척수로는 850여척, teu기준으로는 270만teu 가량 늘어났다.

또한 세계 상위 25개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량은 연평균 12.3%씩 증가하여 1997년 1월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형 선사들에 비해 대형선사들에게 많은 선박량이 집중돼 있음이 드러났다.

【물류뉴스-기타】

◆ 사이버로지텍,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운물류 IT전문 기업 사이버로지텍(대표 김인제)은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기능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홈페이지



(www.cyberlogitec.com)를 지난 4월 28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로지텍은 새 홈페이지의 컨셉을 '글로벌 물류 IT'로 정하고, 디자인면에서는 이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Green과 Brown 을 사용하여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이버로지텍 임직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보다 친근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메인화면에서 새롭게 등재되는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Service와 Solution에 대한 소개도 핵심내용 위주로 콘텐츠를 보강하였고, 고객의 물류IT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fo Bank(자료실) 메뉴를 신설하였다.

향후 Info Bank 운영을 통하여 해운물류 및 IT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및 관련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새로운 디자인과 콘텐츠로 기업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물류IT 정보 제공 측면에서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김 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김 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를 오는 6월 1일부로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현 변호사는 현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런던 국제중재원(LICA) 중재인,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 자문위원 및 건설교통부, 철도청,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부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대표 / 변호사

◆ 美·佛 대형트럭업체, 한국시장 추가 진출

미국 대형트럭업체인 인터내셔널과 프랑스의 르노상용차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준비중이다.

상용차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대형트럭 업체인 르노상용차는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파트너를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르노상용차의 국내파트너로는 LG 상사와 캐터필러 전문 생산업체인 예





인, 그리고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 4~5개 업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르노상용차는 이들 업체들의 재정 및 판매 능력을 검증, 조만간 파트너를 선정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중견 대형트럭 생산업체 인 인터내셔널도 국내 대형트럭시장에 진출키로 하고 일부 차종에 대한 인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내셔널은 수년

전부터 중고 대형트럭을 국내에 반입, 시판해 오고 있으며 신차 판매는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르노와 인터내셔널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의 스카니아, 볼보, 만, 벤츠, 이베코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한국의 대형 상용차시장은 그야말로 수입트럭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트랙터, 덤프트럭 등 대형 상용차부문에서 외국의 유명 트럭업체들이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입트럭업체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판매가 이뤄졌고, 수입트럭이 국산 트럭에 비해 품질과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중소기업 SCM 확산 목적, 금융권 결합된 컨소시엄 구성

대우정보시스템과 기업은행,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중소기업 SCM 구축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내 물류산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금융권과 솔루션 벤더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사는 시험사례로 지난 1월 경기도 안산 소재의 자동차 및 전자의 사출 부품 생산업체인 아성프라텍(대표 노시백)에 성공적으로 SCM을 구축한바 있다. 아성프라텍의 SCM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이들 삼사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중소기업 SCM 구축을 위한 사업에 본격 뛰어들게 되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 5.2%의 저리 자금용자, 5년거치 상환 및 기업 인터넷 뱅킹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상황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을 제안하게 된다.

### ◆ 라이거시스템즈, 제휴사 확대로 iCan PS 사업 강화

웹 기반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라이거시스템즈(대표 황시영)가 iCan PS(아이 캔 프로바이더 스위트)의 사업 강화에 나선다. 라이거시스템즈는 최근 이밸리사람들(대표 전인수), 넷크루즈(대표 홍성각) 등과 서비스관리 솔루션 iCan PS의 사업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라이거시스템즈와의 제휴를 통해 이밸리사람들은 서비스관리 솔루션(SLM) iCan PS의 기술교육은 물론 향후 프로젝트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라이거시스템즈와 함께 국내 시장 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넷크루즈는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측정솔루션인 Marco(마르코)와 라이거시스템즈의 iCan PS를 연동, 각 솔루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향후 공동 세미나개최 등 영업 및 마케팅의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라이거시스템즈는 iCan PS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이밸리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넷크루즈를 통해서도 iCan PS의 애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측정기능을 보완하게 되었다.

라이거시스템즈의 황시영 사장은 "라이거시스템즈와 두 제휴사는 관련 솔루션들을 서로 연동하여 iCan PS 솔루션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3사는 전문 인력 및 기술을 공유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나아가 SLM시장 확대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라이거시스템즈의 서비스 관리 솔루션 iCan PS는 지난해 LG CNS의 솔루션 시험적용 프로젝트와 현대정보기술에 성공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올해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